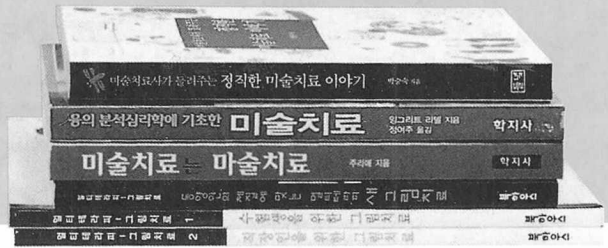


## “그림을 보면 저절로 병이 낫는다”

미술 치료방법과 치료사례 적절히 묶어...  
대체의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반영해

미술치료 관련 서적이 속속 출간되고 있다. 서점가에 출간된 미술치료책들은 대체로 서구의 미술치료 이론과 그에 따른 치료사례를 소개한 책들이다. 그런 가운데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미술치료법을 개발, 소개한 책도 있어 눈길을 끈다.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악치료법, 드라마치료법을 소개한 책들도 활발히 출간될 전망이다.



미술치료는 말 그대로 그림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다. 예술가는 작품 창작과정에서 자신의 고뇌나 고민을 은연중에 표출하게 된다.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고 성숙해간다. 미술치료는 예술의 이런 치유기능을 응용한 것이다. 치료사는 환자가 완성한 그림을 통해 환자의 내면상태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처방을 내린다. 한편, 치료사가 환자의 그림 창작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미술치료는 언어 표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나 청소년의 심리문제를 치료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도 미술치료 관련서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아직까지 미술치료는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낯선 치료법이지만, 미술치료서적의 출간이 증명하듯 미술치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가고 있다. 서점가에 출간된 이들 미술치료 책은 치료이론과 사례를 묶은 책, 미술치료의 전 과정을 자세히 소개한 책, 미술치료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융의 분석심리학을 토대로 미술치료의 이론을 설명한 책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 미술치료의 사례 적극적으로 활용한 책 나와

가장 최근에 출간된 책은 《미술치료는 마술치료》(주리에, 학지사)다. 이 책은 미술치료에 관한 전반적인 이론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은이가 미술치료사 인턴으로 일하던 시절에 치료했던 환자들의 임상사례도 소개했다.

이 책에서 지은이가 특히 강조한 것은 미술치료사의 역할이다. 지은이는 먼저 “미술이 환자를 치료할 수도 있지만, 미술작품에 나타난 이미지는 환자를 압도할 수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환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미술치료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된 테크닉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성을 열어주는 미술의 존재와 그것을 격려하고 조정하는 치료사”라면서 미술치료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미술치료사가 환자와 맺는 관

계 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는 환자들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는데, 먼저 그림의 형식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공간의 사용 정도, 화면에서 그림이 그려진 위치, 그림 재료의 선택, 중요한 대상의 크기, 필압 정도, 선의 성질, 환자가 써 놓은 글씨 등으로 나눠 설명한다. 예를 들어 환자가 그림을 그릴 때 어느 한 위치에 만 그림을 그린다면 그 환자는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는 그림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 우선 그림의 완성도와 전체적인 짜임새가 중요한데, 이는 미적 완성도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오히려 미술치료사는 미적인 차원에서 환자의 그림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미술치료에서 말하는 그림의 완성도란 그림의 미적 성취도가 아니라 “환자가 그릴 수 있는 만큼 다 그렸는가”다.

이 책은 미술치료의 이론과 실례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미술치료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 적당하다. 또한 부록으로 미국에서 미술치료 석사과정이 개설된 대학 현황을 실어 미술치료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

미술치료사가 미술치료의 전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노트를 책으로 엮은 것도 있다. 《미술치료사가 들려주는 정직한 미술치료 이야기》(박승숙, 들녘)가 그것이다. 지은이는 미국에서 미술심리치료학 석사학위를 받은 미술치료 전문가. 지은이가 서울의 한 시립정신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할 때 담임교수에게 제출한 보고서를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은 지은이가 민주(가명)라는 21살의 대학생을 치료하며 겪었던 시행착오를 가감없이 실었다. 정신분열적 증세를 보이는 민주는 자신을 사탄이라고 믿으며 동성애적 기질도 있었다. 지은이는 “미술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해 볼 수 있게 도와주며, 혼

자 해결하기 힘든 벽찬 것들은 밖으로 끄집어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느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서 민주를 설득한다. 그리고 13차례에 걸친 치료가 진행된다.

이 책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지은이가 저지른 실수까지 기록해 놓았다는 것. 지은이는 그다지 성공적인 치료가 아니었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정직한 미술치료 이야기'다. 치료를 받는 도중 민주가 그린 그림과 작품 사진도 실어 읽는 이들의 이해를 돕는다. 미술치료의 실제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기존의 서양 미술치료법을 탈피, 동양의 오행철학을 접목시켜 만든 미술치료법을 소개해 화제가 된 책도 있다. 《동양인의 체질에 맞는 멀티테라피 새 그림치료》(장성철, 북하우스)가 그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멀티테라피 그림치료'는 눈(眼), 귀(耳), 혀(舌) 등의 신체 각 부위가 청(靑), 적(赤), 황(黃), 백(白), 흑(黑) 등의 오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오색은 또 오장육부와 관계한다고 설명한다. 지은이는 이 원리에 따라 그림의 구도를 맞춰 적절한 색깔을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은이의 또 다른 저서 《직장인을 위한 그림치료》와 《수험생을 위한 그림치료》(이상 북하우스)는 소화불량, 두통, 관절염 등 각 질환에 따른 치료그림을 제시한다.

### 융의 심리학을 토대로 한 미술치료법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은 "환자는 그림 그리는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을 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그림이 기쁨과 즐거움, 불안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을 전하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했으며 미술치료는 이 메시지를 풀어가는 여행이라고 했다. 《융의 분석심리학에 기초한 미술치료》(잉그리트 리델, 정여주, 학지사)는 이런 융의 미술치료구상에 근거해 미술치료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규명한 책이다. 이 책 역시 미술치료와 관계된 다양한 그림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으며 구체적 사례를 통해 미술치료의 실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3부 <집단에서의 그림>은 미술치료를 위해 모인 집단이 샘, 우물, 폭포, 나무, 달과 같은 융의 원형적 주제에 따라 그려진 상상화를 해석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만다라를 통한 미술치료》(수잔 핀처, 김진숙, 학지사)는 탕화의 일종인 만다라의 치유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만다라 속에 나타난 색깔, 숫자, 형태, 새나 꽃과 같은 소재들이 상징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의식발달과정도 함께 논의한다. 이 책 역시 만다라를 활용한 치유사례도 함께 담았다.

《미술치료의 이해와 실제》(한국미술치료학회), 《가족 미술치료》(전기덕 엮음), 《성인 미술치료》(김동연, 이상 동아문화사)는 미술치료학개론서다. 한국미술치료학회 소속의 전문가들이 각 장르별로 대표적인 이론을 소개했다.

최근 들어 서점가에는 향기치료요법, 파동치료요법, 운동치료요

## “체질에 맞는 치료법 개발 요구돼”

멀티테라피 그림치료법을 개발한 장성철 교수(40, 중앙대 예술대학원)를 만났다. 그는 요즘 자신이 개발한 멀티테라피 그림치료법을 알리기 위해 바쁘다. 지난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평아트센터에서 <멀티테라피—그림치유전>을 열기도 했다.

— 그림치료의 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달라.

“그림치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주목적이다. 그림치료는 건강한 사람도 계속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작가는 또 다른 치료사기 때문이다. 감상자는 그림을 통해 마음을 열고 스스로의 상처를 치유한다. 그 예는 동양화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동양에서는 좋은 그림을 앞에 두고 '기운생동'이라는 말을 썼다. 그림에서 나온 기운이 사람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다. 좋은 그림을 보고 있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림에는 치유기능이 있다.”

— 멀티테라피 그림치료법이 기존의 미술치료법과 구별되는 점은?

“기존의 미술치료요법에 동양철학과 한의학을 접목시킨 것이다. 미술심리치료가 그림 그리는 사람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과 달리 이 치료법은 미술치료사가 먼저 자신의 내면세계를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진다. 기존의 미술치료에 비해 치료율도 훨씬 높다고 자부한다.”

— 그림 치료가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

“스트레스 치료에 효과적이다. 특히, 자폐아·산만아·부적응아 등과 불면증·위장병·두통·알레르기성 비염 등 스트레스성 정신적·육체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다. 또한 아동교육에도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창의력을 높여주며 사고능력을 길러준다.”

— 최근 국내에도 미술치료가 활발히 소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치료 관련서적의 출간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미술치료법이 새로운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소개돼 있는 미술치료법은 모두가 서양의 것이다. 이는 동양인의 정서와 체질에 맞지 않아 큰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성이 모두 다른 환자에게 통계에 의해 추출된 일반적 치료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법을 소개한 책들이 활발하게 출간되고 있다. 이는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음악치료, 드라마치료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을 소개한 책들이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최갑수 기자